전국 사학명문 발돋움 광덕고 신흥수 이사장

"공부보다 인성 교육 중시 사회에 필요한 인재 육성"

"지금 당장 높은 성적을 내는 것보단, 졸업 후 우리 사회의 인재가 되도록 하는 게 학교의 교육 목표입니다."

13일 만난 신흥수(68) 만대학원(광덕중·고) 이사장은 학교 운영의 원칙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이사장은 광주의 일반계 사립고교에 불과했던 광덕고를 지난해(2009학년도)대입에서 4년제 대학 진학률 1위 등 전국 최고의 명문고교로 올려놓은 뒤 타 고교 이사장들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신 이사장은 "광덕고의 4년제 대학 평균 진학률이 전국 일반계 고교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을 접하곤 깜짝 놀랐다"면서 "교사와 학생들이 밤낮없이 공부에 매진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했으면 이처럼 좋은 성적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고교 1~2학년 때 인성 교육에 충실한 것이 높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 이사장의 교육 철학의 중심에는 인성 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신 이사장은 학생들의 인성을 높이기 위해 교실 12칸을 음악, 미술 등의 실습 공간으로 만들고, 또 다른 교실 12칸을 도서관으로 탈바꿈해놓았다. 이 도서관에는 신간 도서만 3만여 권에 이를 정도며, 하루 평균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찾고 있다.

신 이사장은 "인성은 타고난 것이기도 하지만 교육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고교 교육 과정에서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게 중요하며, 인성이 나쁜 학생이 공부만 잘해 사회에 진출한다면 독(毒)이 될 뿐"이라며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이사장은 또 사학법인과 학교 행정의 철저한 분리 원칙도 고수하고 있다.

"개교 30년이 다 되도록 단 한 번도 학교 교원 인사와 관련해 말썽이 없었다"고 밝힌 신 이사장은 "혈연·지연·학연을 배제한 능력 위주의 교원 인사는 학교 성장의 밑거름이며, 이는 교사의 교육 열정을 높여주는 원동력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은 "앞으로 광덕고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산소'같은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모든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올바른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광덕고의 마지막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우리밀 체험장 운영 '추억의 빵' 광주 파고다 FS 이양선 사장

어린이들에 건강한 먹을거리 우리밀 알린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밀 중 수입밀은 99% 이상을 차지하지만 우리밀은 1%도 미치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밀의 소중함도 알리고 빵을 직접 만들어 보는 기회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해주고 싶었습니다."

1980년대 동네 슈퍼마켓의 최고 인기상품 파고다빵을 만든 (주)파고다FS 이양선(사진) 사장은 최근 광주 하남공단에 위치한 공장 내에 '우리밀 체험장'을 만들고 4~10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케이크 만들기 실습 등을 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직접 우리밀로 케이크를 만들어보면서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은 물론 우리 음식의 중요함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파고다FS는 지난 1955년 창립된 영일식품(창립주 윤옥현)의 명칭이 바뀐 곳으로 파고다빵 브랜드 80여 종류를 생산하는 광주지역의 중견기업이다. 지난 1980년대에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파고다빵이었지만 체인점 형식의 제과점과 편의점 등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경쟁력을 잃어갔다. 이후 2002년 파고다FS로 회사명칭을 바꾸면서 편의점 PB제품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 군부대 납품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광주의 중견 제과제빵업체 파고다FS에서 주관하는 '우리밀 체험장'에서 어린이들이 우리밀을 이용한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

이 사장은 "회사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제과제빵 업체인 만큼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일어설 수 있었다"며 "비싼 가격 탓에 우리밀을 사용한 빵을 많이 만들진 못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 1994년부터는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와 함께 '우리밀 모닝빵'을 만들며 우리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우리밀의 전체 생산량 가운데 25%를 생산하는 광주시가 농식품부로부터 '우리밀 광역클러스터'로 지정되면서 더욱 조명받고 있어서 파고다FS의 체험장은 더욱 활기를 띨 예정이다.

지난 6월27일 시작한 '우리밀 체험장'은 참가비 1만원을 내면 전문가와 함께 부모에게 줄 케이크를 같이 만들게 되며 우리밀로 만든 샌드위치가 점심식사로 제공된다. 지금까지 2천300여명이 참여해 공장 내부의 제과제빵 과정까지 견학하는 등 학부모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사장은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탐구심을 높이고 부모님께 선물하는 케이크 만들기를 통해 자기주도적 체험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빵인 만큼 안전한 먹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전남대 교수들, 제자위한 '기부 바이러스' 확산

전남대 교수들 사이에 제자들을 위한 기부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

13일 전남대에 따르면 류동일 응용화학공학부 교수는 '사랑의 저금통' 기부자로 유명하다.

지난 97년부터 연구실 책상에 작은 저금통을 두고 하나, 둘씩 모은 동전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류 교수가 10년 넘게 모아 기부한 저금통은 40여개로 액수만 370여만원이다.

류 교수는 "동전 모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담스럽지 않은 습관"이라며 "작은 마음이나마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효식 가정교육과 교수는 올 초부터 동문을 대상으로 '후배 사랑운동'에 나서고 있다. 후배를 위해 학과 장학금을 조성하자는 제안에 20여명의 동문이 선뜻 1천800만원의 장학금을 내놓았다.

교수들의 릴레이 기부도 눈길을 끈다. 이 대학 대표적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총장명예학생' 지원을 위해 기부자가 다음 기부자를 지정하는 식이다.

100만원씩 부담하는데 박창수 의과대학장을 시작으로 의대 교수와 허정 에덴병원장, 송영웅 순천중앙병원장 등 동문까지 더해 현재 13명이 참여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내방

▲길태기(광주지검 검사장)씨

베스트셀러 소설 '목민심서'의 작가 황인경씨를 비롯한 Karis국악선교단이 제37회 강진청자축제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베스트셀러 작가가 사물놀이 공연

소설 '목민심서' 황인경씨 12일 강진 청자축제서

베스트셀러 소설 '목민심서'의 작가 황인경씨가 사물놀이 공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Karis국악선교단 일원인 황인경 작가는 지난 12일 강진청자축제(8~16일)에 참가해 사물놀이 공연을 펼쳤다.

특히 같이 공연한 팀에는 가수 MC몽의 이모와 탤런트 한고은씨의 어머니 등 유명연예인 가족들도 함께 해 공연장을 찾은 청소년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8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선정한 제37회 강진청자축제장에 참가한 황 작가 등은 공연 중간 가수 MC몽의 신곡 CD와 탤런트 한고은의 사인이 새겨진 브로마이드와 함께 직접 현장에서 친필로 사인한 황인경 소설가의 소설 '목민심서' 등 푸짐한 경품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한예종 총장에 박종원씨

정부는 13일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의 신임 총장으로 영화감독 출신의 박종원(49)씨를 임명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신임 박 총장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영원한 제국' 등 영화를 연출한 감독 출신으로, 1995년부터 한예종에서 후학들을 가르쳐왔으며 올해 3월에는 한예종의 영상원장도 맡았다.

한예종 총장은 교내 선거를 거친 후보 2명 중 1명을 골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연합뉴스

취업상담교수 대상 강의

금호고속 김성산 사장은 13일 광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조선대학교 취업상담교수 60여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기업의 인재상'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 강의는 (사)한국능률협회 주관의 '조선대학교 커리어 컨설턴트 양성교육'의 한 과정이다.

광주은행 나주서 '직원자녀 하계캠프'

광주은행은 노사가 공동으로 최근 나주 중흥골드스파 워터락에서 '2009년도 직원자녀 하계캠프'를 열고 직원 자녀가운데 초등학교 3~6학년생 204명을 초청, 물놀이 등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광주은행 제공〉

익사위기 형제 구한 김민석군에 표창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왼쪽)은 13일 익사위기의 형제를 구해낸 '작은 영웅' 김민석(17·광양제철고 2년)군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 김군은 지난달 25일 광양 옥룡계곡에서 물에 빠진 문군 형제를 구조하고 응급처치까지 해 살려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북성중 14회 동창회(회장 이현규) 월례회=14일(금) 오후 6시30분 신창동 선일농원. 062-953-9008.

▲조선대부속고등학교 제20회 동창회(회장 임성기)=20일(목) 오후 6시30분 백운동 모아산부인과 옆 대나무집. 062-671-8453.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강의=29일(토) 오후 2~5시 광주대 중앙도서관 5층. 수맥·나경·입향론·지도상명당 등 이론과 현상 제시(책자 무료 제공) 062-670-2161.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062-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전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forchild.or.kr

모집

▲풋골프 친선경기 및 회원모집=발로 볼을 차 홀에 넣는 풋골프 회원 모집,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첨단교통공원 뒤 풋골프장. 010-4604-4608.

▲문해 한글과정 자원봉사 여교사·학생 모집=성인한글 초급·중급·고급반, 중입검정고시반 등 월~금요일 오전 9~12시, 오후 2~4시. 062-951-5397.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수지침 요법을 배워 사회 봉사에 참여할 분. 무료. 018-610-3360.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한국웃음협회 회원 모집=건강회복과 웃음문화 보급을 위한 웃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016-607-1958.

▲어린이재단 전남가정위탁 지원센터 위탁 아동·부모 모집=친부모의 사망·가출 등으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과 봉사 차원에서 아동을 양육해 줄 위탁부모 모집. 061-279-1225~6.

▲종합민요사랑모임 회원 모집=민요를 사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100원회 회원 모집=1일 100원으로 부담없이 이웃 사랑 실천하실 분. 011-666-0660.

▲사랑의 교실 중·고등학교 과정 교사, 수강생 모집=국어·영어·수학·사회과목 무료 봉사자, 월~금요일 오후 7시~10시30분. 062-223-8529, 016-223-9541.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 학생 모집=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 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무료 강의. 서방시장안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수도방위사령부 제33경비단 호남 전우회 모집=김인기(부회장·불사조 321기) 011-633-5747.

▲운암골 족구회 회원 모집=일요일 오후 운암동 예술고. 011-609-2850(전일찬).

▲푸른복지 문화센터 무료 수강생 모집=홈패션, 리본공예, 웃음치료, 칼라믹스,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등. 010-9940-1769.

▲(사)전남장애인재활협회 지회 모집=전남 시·군 지역(순천, 나주 제외), 복지분야 경험자로 덕망있는 자. 061-334-3636.

▲인우회 회원 모집=광주지역 전·의경 전역자들의 모임, 회장 019-277-0007.

부음

▲배태순씨 별세 회영·회원·귀례·영숙씨 부친상=발인 15일(토)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백형식씨 별세 수원·종기·수철·현진·순희씨 부친상=발인 15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박광진씨 별세 최영래·영욱·정자·송월·유진씨 모친상=발인 15일(토)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박순용씨 별세 제현·선진·맹숙·도현·명희씨 부친상=발인 15일(토) 주월동 나라장례식장 3층 특실. 062-670-4444.

▲박봉민(전 벌교상고 교장)씨 별세 정주(개인사업)·흥주(개인사업)·광주(한전 고흥지점)씨 부친상=발인 14일(금)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이용산씨 별세 종필·주아씨 부친상=발인 14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문숙자씨 별세 박현석·미녀·현미씨 모친상=발인 14일(금) 나라장례식장 201호실. 062-670-4444.

▲박기환씨 별세 남호·현호·향미씨 부친상=발인 14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